

# “경영권 승계 관련 임원 줄소환”

### 삼성특검 착수 한달...지배권·로비 의혹 수사 가속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는 11일부터 주요 수사대상인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피고 발인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0일 “고소·고발 사건 피고 발인들이 이르면 내일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대부분 사장 및 임원급 인사들이다. 출석자별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1~2명씩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차명계좌와 관련 의혹이 아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그들 내 고위급 인사들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기초 조사를 벌여 온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이 되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에버랜드와 e삼성, 서울통신기술, 삼성SDS 등의

회사들과 관련이 있으며 에버랜드 CB 자가발행 사건은 피고발인 33명 중 이견회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전원을 재조사하기 보다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인사들을 선별해 우선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차명명실 계좌 명의자’인 삼성화재 신동익 전 상무를 불러 계좌 개설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장모 부장을 상대로 지난달 삼성화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증거물을 없애려 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와 범행 관여 여부 등을 캐물었다.

# 李당선인 형 상은씨 방문조사

### BBK 특검, 도곡동 땅 매각자금 사용처 등 추궁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는 9일 이 당선인의 만형인 상은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수사팀을 보내 방문조사를 벌였다. 상당히 병약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경주 동국대 병원에 있다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일원동 강남삼성병원에 입원했다.

특검보와 검사 등 3명의 수사진은 이날 오후부터 이씨의 병실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내용과 이씨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자본이 동생인 이 당선인의 차명재산일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핵심 인물이다.

검찰도 지난해 8월 ‘도곡동 땅의 이씨 자본은 본인이 정확한 자금유용 내역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그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놨었다.

검찰은 그 이유로 매입자금 7억8천만원을 골재 채취 수입과 현대건설 납품 이익, 잿소 판매 대금 등으로 조달했다면서도 객관적 증빙 자료

가 전혀 없고, 매각대금을 거의 쓰지 않은 채 100억원 이상을 저금리 채권 등에 10년 이상 넣어둔 점, 2002년 7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매달 1천만~4천만원씩 15억여원을 97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 인출한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그가 어떻게 땅 매입자금을 조달했는지, 이 땅을 포스코개발에 매각한 뒤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가 무엇인지, 땅 대금 일부가 왜 투자금에 포함됐는지 등을 따졌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BBK 주가지와 및 ㈜다스 실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김경준씨를 열번째로 불러 최근 조사한 LKe뱅크 전 부회장 김백준씨 및 LKe뱅크 비서 이진영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는 특검팀에 출두하면서 미 LA 연방법원이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누나 예리가 김 전 변호사 등에 대해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게 아니며, 혈관에 산 현재 주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 日, 한국과 FTA 협상 조기 재개 타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중단 상태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 방안을 수면 하에서 타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샤(日本經濟)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농산물, 공산품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공업제품의 국제표준화 등 더욱 넓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4월 한국의 총선 이후 협상 재개 시점으로 정하고 한국측과 시점, 의제 등을 놓고 절충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농산물, 공산품 등의 관세 철폐 이외에 협력 강화 대상으로 ▲산업기술과 에너지 절약 기술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 상호 입점 ▲자격제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실무급 협상을 가졌으나 농림수산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논란이 겹치며 2004년 1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 오바마 ‘포스트 슈퍼화요일’ 완승

## 美 대선 민주당 3개주 경선서 힐러리에 대승 공화당 허커비, 매케인 제치고 ‘빛바랜 승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9일(현지시간) 실시된 루이지애나·위싱턴·네브래스카주 등 3곳에서 실시된 ‘포스트 슈퍼화요일’ 첫 대결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게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5일 슈퍼화요일 대전까지 힐러리와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숨막히는 접전을 벌여온 오바마는 향후 경선에서 힘의 균형을 꺾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 공화당의 경우 마이

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루이지애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캔자스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했으나 매케인이 이미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빛바랜 승리’에 그쳤다.

오바마는 이날 오후 10시30분(미 동부 시간) 현재 94% 개표가 이뤄진 워싱턴주 코커스에서 68%를 득표, 31% 득표에 그친 힐러리에게 대승을 거뒀다.

오바마는 루이지애나주 프라이머리에서도 5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를 득표, 힐러리(39%)를 크게 앞섰으며, 99% 개표가 이뤄진 네브래스카주 코커스에서도 68%의 지지를 얻어 32%를 얻은 힐러리를 대파했다.

이로써 오바마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슈퍼화요일을 계기로 힐러리를 누르고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오는 12일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미국 정치의 1번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에서도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당초 장기전이 예상됐던 힐러리와 승부를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슈퍼화요일 대전에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대의원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 전체 대의원 확보 수에서 오바마를 앞섰던 힐러리는 ‘포스트 슈퍼화요일’ 첫 대결에서 오바마와의 대의원 수 격차를 확대했다는 방침이었으나 실패했다.

공화당 경선에서 허커비는 개표가 완료된 캔자스주 코커스에서 60%를 득표, 24% 득표에 그친 매케인에게 승리했고, 루이지애나 프라이머리에서도 이날 오후 10시50분 현재 73%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46%를 얻어 매케인(40%)을 앞지르며 승리를 예고했다. 허커비는 또 37% 개표가 진행된 워싱턴주 코커스에서도 27%를 득표, 23%를 얻은 매케인을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뒷심’을 과시했다.

매케인은 ‘포스트 슈퍼화요일’ 첫 대결 3곳에서 허커비에게 뒤짐으로써 공화당 핵심세력인 보수파들의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9일 버지니아주 리치먼트에서 열린 버지니아 민주당 제퍼슨-잭슨 디너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힐러리 진영 패닉

### 텍사스·오하이오 승리 다짐

힐러리 클린턴 미국 상원의원의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참모들이 클린턴 의원의 최종 후보 당선 가능성 때문에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의 팽팽한 경쟁구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의원이나 고위 당 관리들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들에 대한 공략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0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클린턴 진영이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클린턴 의원측은 다음달 4일 실시되는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 경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 5일 ‘슈퍼 화요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치러지는 9곳의 경선에서 오바마의 원이 모두 이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 G7 재무장관 산유국에 석유 증산 촉구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9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G7 참가자들은 이날 도쿄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견디엔탈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 원유 및 곡물가격 급등, 일부 국가에서의 인플레이 우려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적

## 美 여성 루이지애나공대서 2명 살해후 자살

한 젊은 여성이 지난 8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공대의 교실에서 2명의 여학생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에 있는 루이지애나공대 2층 강의실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있던 여학생 2명에게 총격을 난사해 그 자리에서

##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이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 E-Supporter가

영어공부 하기 좋은 이유?

- 1. 저가시절부터 실시 시소일
- 2. 저가형 맞춤 커리큘럼 제공
- 3. 24시간의 영어사용전화로 문의
- 4. 배려스피어리치 커리큘럼

###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한치수 30분씩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 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료 및 숙박비 별도)

- 비자 신청 및 발급료, - 항공권 구매 비용,
- 필수 물품, 식사, 음료, 기초 언어 코스, - 전 과정에 따른 수료증 발급

성동점 ☎ 0621 264-0882, 010-2255-0459

## 청하

일식요리의 명가

고급한 요리수업 교직원에 남게됩니다. 우리의 화제도 전하여 같이 공부하고 연수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요리지도 전해서 정말인 요리보습입니다.

대표 홍순환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대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

청하 연수원(경북) 대구 중구 동성로 4가 2-기번지

☎ 223-7037 / 224-5002